

타액선 종양

대부분의 구내 소타액선 종양은 경구개의 후방에 주로 발생하며 그외에 상순, 협점막, retromolar region, 혀와 구강저에서도 생길수 있다.

악성 종양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mucoepidermoid carcinoma와 adenoid cystic carcinoma이다.

양성 종양인 경우 30~39세에 호발하고 악성종양인 경우에는 40~49세에 호발하며 둘 다 여성에 호발한다.

이들 종양은 대개 무증상이므로 routine examination에서 대부분 발견되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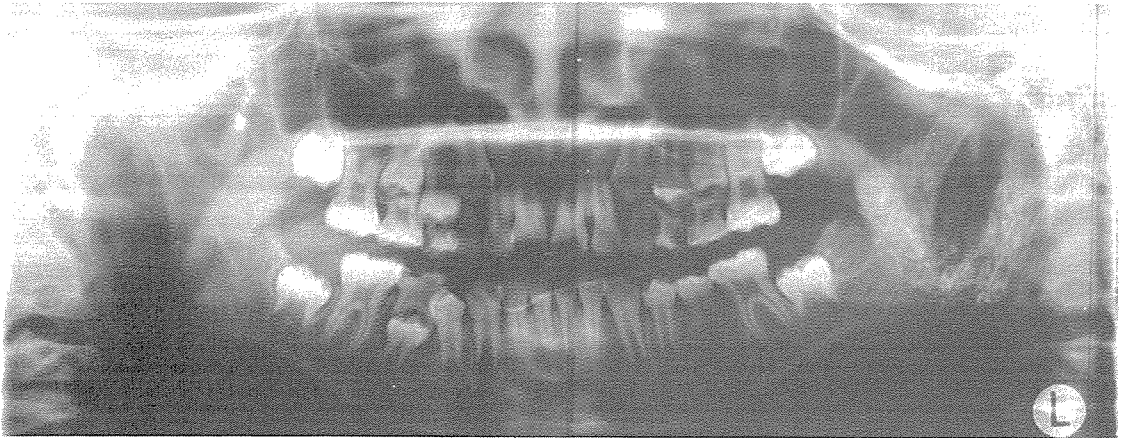
그러나 adenoid cystic carcinoma의 경우는 perineural space로 침투하므로 동통이 발생한다.

양성종양의 경우는 연조직하 골에 경계가 분명한 saucer-like depression을 보이며 악성종양의 경우 골을 침투하여 경계가 불분명한 방사선 투과성의 골결손을 보인다.

타액선의 외부에 생긴 종양은 종종 하악의 우각부와 하악지 아래에 국소적인 종창을 일으키는 원

인 중의 하나가 된다.

metastatic adenopathy나 lymphoma는 cervicofacial region에 무증상으로 나타나는 혼한 mass 중의 하나이며 간혹 결핵이나 매독등의 감염성 질환에서 lymphadenitis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원발성 구강병소와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별 진단에 도움이 된다.



정우 치과기공소

Jung Woo Dental Lab.

전화 765-0606, 743-6633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제동 145번지  
(혜암빌딩 5층)